

##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와 감탄사 통용\*

徐泰龍\*\*

국어 품사 분류 기준을 <제1 기준> 형태, <제2 기준> 통사, <제3 기준> 의미, <제4 기준> 의미의 공통점이라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용하면 감탄사와 관련된 품사 통용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형태’는 형태론적 특징으로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을 적용하며, ‘통사’는 통사론적 수식 기능을 적용한다. ‘의미’는 의미론적 동음어를 다른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의미의 공통점’은 대명사와 수사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 순위의 기준으로 분류한 단어를 더 이상 다음 순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감탄사와 관련된 품사 통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감탄사와 통용된다는 명사, 관형사, 부사는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제1 기준>과 <제2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명사, 관형사, 부사일 뿐이다. <제1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관형사와 부사는 <제2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제2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관형사는 명사와 명사구만을 수식하며, 부사는 동사와 동사구, 관형사나 부사와 이들이 핵인 수식사구, 명사와 명사구, 어미구 등 문장안의 성분을 수식한다. 부사는 수식 대상 앞에 위치하여 위치에 따라서 수식 대상이나 수식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감탄사는 <제2 기준>인 통사론적 수식 기능이 없는 단어이다. <제1 기준>과 <제2 기준>으로 순서대로 분류한 단어가 동음어로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경우 <제3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한 어휘가 명사와 감탄사, 관형사와 감탄사, 부사와 감탄사의 기능을 함께 보이면, 그 품사는 명사, 관형사, 부사이다.

핵심어: 품사 분류 기준, 우선순위, 감탄사, 명사와 감탄사 통용, 관형사와 감탄사 통용, 부사와 감탄사 통용

\* 이 논문은 2014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 1. 서론

‘몰아내자’고 해도, 제목에 ‘그만’이라고 해도, 품사 통용 문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은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른바 ‘독립어’ 기능을 보인다는 감탄사와 다른 품사의 통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sup>1)</sup>

감탄사는, 통용된다는 다른 품사의 종류가 다양하다. 《표준》과 《표준 2016》의 경우 감탄사와 다른 품사의 통용이 20%가 넘으며 《표준 2016》에서는 《표준》보다 그 비율이 3% 정도 더 늘었다.

(1) 《표준》, 《표준 2016》의 감탄사와 다른 품사의 통용<sup>2)</sup>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통용/ 감탄사 총수	비율
《표준》	127개	8개	0개	11개	25개	0개	171/812	약 21.1%
《표준 2016》	163개	10개	0개	12개	31개	0개	216/877	약 24.6%

- 1) ‘몰아내자’고 하면서 기본 통사 범주로 명사(N), 동사(V), 수식사(A), 어미(E)를 설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논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네 범주의 하위 범주와 관련된 문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논의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만 대명사, 수사, 형용사 등을 사용한다(徐泰龍 2000: 261-284). 이 글은 규범문법과 사전의 품사 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만’은 徐泰龍(2006: 360-362)을 참조.
- 2) 국립국어연구원(1999)을 《표준》, 국립국어원(2016)을 《표준 2016》으로 구별하여 표시한다. 문제가 되는 단어는 다른 사전도 함께 검토하여 제시하는데 이 글에 인용하는 다른 사전은 다음과 같이 줄여서 표시한다. 품사 명칭이 다른 《조선》, 《한글》의 경우도 규범문법대로 모두 통일하여 제시한다.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2007) ⇒ 《조선》

한글학회 지음(1992) ⇒ 《한글》

운평연구소 편(1991/1996) ⇒ 《금성》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2000) ⇒ 《연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9) ⇒ 《고려》

(1)에서 명사, 대명사와 통용된다는 감탄사는 명사, 대명사가 독립어로 쓰이는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굳이 감탄사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徐泰龍 2012: 19-20). 명사, 대명사와 통용된다는 감탄사는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더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관형사나 부사와 통용된다는 감탄사 역시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표준 2016》에서 감탄사와 다른 품사의 통용으로 기술한 단어 가운데 일부를 예시하여 통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

국어의 기본 통사 범주를 설정하기 위하여 徐泰龍(2000: 263)에서 제시했던 (2)는 일반적인 품사 분류 기준 (2가, 나, 다)에 (2라)를 추가한 것이다.

### (2) 통사-단위의 통사 범주 설정 기준

- 가. 형태론적 특징이 동일하면 하나의 통사 범주로 설정한다.
- 나. 통사론적 기능이 동일하면 하나의 통사 범주로 설정한다.
- 다. 의미의 공통점이 있으면 하나의 통사 범주로 설정한다.
- 라. 형식과 의미가 일정하면 하나의 통사 범주로 설정한다.

품사 분류에서 (2가)보다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는 (2나)를 버리자고까지 하였던 것은 품사 통용 때문이었다.<sup>3)</sup>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었던 (2다)를 규범문법의 대명사, 수사를 위하여 일단 남겨 두고 (2

3) (2나)는 문제점이 많아 (2나)보다 (2가)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고 (2나)보다 (2라)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徐泰龍(2000: 265-269)을 참조.

라)를 기준에 포함하면, (2)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규범문법의 품사 분류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

가. 형태론적 특징이 동일하면 하나의 품사로 분류한다. = <제1 기준>

나. 통사론적 기능이 동일하면 하나의 품사로 분류한다. = <제2 기준>

다. 형식과 의미가 동일하면 하나의 품사로 분류한다. = <제3 기준>

라. 의미의 공통점이 있으면 하나의 품사로 분류한다. = <제4 기준>

(3)을 순서대로 <제1 기준>, <제2 기준>, <제3 기준>, <제4 기준>으로 하여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적용하면 감탄사와 관련된 품사 통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단어를 분류한 것이 품사이므로 당연히 <제1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제1 기준>과 <제2 기준>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많은 품사 통용을 만들게 된다. 우선순위 없이 독립어 기능을 통사론적 기능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제2 기준>을 먼저 적용하면 감탄사 목록은 무한히 늘어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할 내용을 밝히고 그 이유와 분류 결과를 살펴보자.

<제1 기준> : 교착어미 가운데 이른바 격조사가 통합할 수 있으면 명사, 교착어미 가운데 이른바 어미가 통합할 수 있으면 동사로 분류한다. 교착어인 국어에서 교착어미 곧 조사와 어미의 통합 가능성 여부는 국어 품사 분류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우선하는 기준이다. <제1 기준>은 명사와 동사를 분명하게 분류하고 나머지 교착어미가 통합할 수 없는 단어를 구별할 수 있으므로 가장 우선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격조사의 통합 가능성 여부는 모든 쓰임을 포함하는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이란 격조사가 통합할 수 있는 단어가 특정 환경에서 조사가 통합하지 않은 쓰임을

보이더라도 격조사가 통합할 수 있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명사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제1 기준>으로 분류된 명사와 동사는<sup>4)</sup> 더 이상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곧 <제1 기준>으로 분류한 명사는 격조사 없이 쓰인다는 이유로 <제2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품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1 기준>과 <제2 기준> 두 가지 기준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명사는 이른바 관형어 기능이나 부사어 기능 때문에 관형사나 부사와 품사 통용이 되고, 독립어 기능 때문에 감탄사와 품사 통용이 된다. <제1 기준>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적용하면 명사와 동사를 먼저 분류할 수 있고 명사와 다른 품사의 통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준 2016》의 경우 명사의 뜻풀이에 단순히 조사 ‘에’/‘으로’/‘마다’만 붙여 놓고 부사로 인정하여 명사와 부사 통용이 된 것은 명사이다(어제, 오늘, 내일 등/참말, 정말, 참 등/각각, 매주 등).

《표준 2016》의 경우 관형사의 뜻풀이는 어미 ‘-은/는’으로 끝맺고, 명사의 뜻풀이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하여 ‘[관형사·명사]’로 품사 통용 처리된 것은 명사이다(격조사 가운데 ‘으로’가 통합할 수 있는 ‘-적’이 붙은 단어 등).

<제2 기준> : <제1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단어는 통사론적 수식 기능을 가지는 단어를 먼저 분류한다. 문장 안에서, <제1 기준>으로 분류한 명사를 수식하면 관형사,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로 분류한다. 통

4) 교착어미의 하위 부류로 격조사, 보조사,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등의 분류에 대한 문제는 이 글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교착어미를 분류하지 않을 경우, 교착어미의 통합이 필수적이면 동사, 교착어미가 없어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이면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동사의 하위 부류로 어미의 통합에서 ‘-는다’, ‘-는’, ‘-거라’, ‘-으라’, ‘-자’, ‘-세’, ‘-으마’, ‘-으려’, ‘-으려’, ‘-고자’ 등이 통합할 수 없다는 차이를 근거로 형용사를 분류하는 것도 이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이영경(2003: 13-23)에서 중세국어에 대상으로 형용사에도 어미 ‘-는’, 명령형, 청유형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어 동사와 형용사를 분류하는 문제는 동사와 형용사 통용과 함께 더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사론적 기능이라는 기준은 품사 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어 왔지만 <제1 기준>으로 이미 분류한 단어들에 반복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어와 목적어 기능을 보이면 명사, 서술어 기능을 보이면 동사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제2 기준>은 격조사나 어미가 통합할 수 없는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이다. 통사론적 기능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식 기능을 보이는 단어로 이른바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적용 대상이다. 수식어 기능과 독립어 기능 가운데 통사론적 수식 기능을 우선순위로 하여 관형사나 부사를 먼저 분류한다. 통사론적 수식 기능 역시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이란 통사론적 수식 기능을 가지는 관형사나 부사가 특정 환경에서 수식 대상이 없는 쓰임, 곧 독립어 기능을 보이더라도 통사론적 수식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명사와 명사구만을 수식하면 ‘관형사’, 관형사를 제외한 단어 가운데 동사와 동사구, 관형사나 부사와 이들이 핵인 수식사구, 명사와 명사구, 어미구 등 문장 안의 성분을 수식하면 ‘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徐泰龍 2012: 20-29). 독립어는 통사론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통사론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어 기능’을 통사론적 기능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식 관계를 맺는 요소가 분명한 경우에 통사론적 수식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2 기준>을 적용해도 분류할 수 없는 단어, 곧 통사론적으로 수식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어 기능만을 가지는 것을 감탄사로<sup>5)</sup> 분류한다. 곧 관형사, 부사, 감탄사는 통사론적 기능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수식어 기능과 독립어 기능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독립어 기능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관형사나 부사는 품사 통용이 된다.

5) 감탄사가 어떤 요소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담화 요소와 관계를 맺는다는 논의는 徐泰龍(1999)나: 23-42) 참조. 부사와 감탄사는 모두 어미구와 관계를 보이는 예들이 있어 그 경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예’, ‘아니요’ 등 어미와 관계를 맺는 단어들이 통사론적 수식 기능을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徐泰龍(2016)으로 미룬다.

위의 두 기준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품사 통용을 해결할 수 있다.

- ① 명사가 조사 없이 통사론적 수식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 관형사나 부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② 명사가 조사 없이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 감탄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③ 관형사가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 감탄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④ 부사가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 감탄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3 기준> : 위의 두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의미론적 동음어는 다른 품사로 분류한다. 형식이 동일한 단어가 의미 차이가 분명하면 동음어이므로 이 기준을 적용해서 다른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 품사 통용과 동음어를 분명히 구별하여 품사 통용을 없애기 위한 기준이다. ‘저’, ‘이런’, ‘비교적’, ‘천만’과 같은 단어는 <제1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의 의미와 <제2 기준>이나 <제3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의 의미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음 현상을 보이면 각각 다른 단어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

품사 통용은 하나의 단어에 대한 것이고, 동음 현상은 두 단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구본관(2010: 192-193)에서는 徐泰龍(2006: 371-382)에서 ‘과격적인 제목’과는 달리 ‘비교적’, ‘천만’, ‘마저’의 품사 통용을 인정한 것으로 비판하였는데 품사 통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단어 곧 동음어로 구별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제4 기준 : 제1 기준의 보조 기준> : <제1 기준>으로 분류한 명사는, 명사 대신 쓰이고 [직시성]이라는 의미의 공통점을 보이면 대명사,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낸다는 의미의 공통점을 보이면 수사로 분류한다.<sup>6)</sup> <제4 기준>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므로 <제1 기준>의 보조 기준이 되어야 하고 적용 순서는 <제1 기준> 바로

다음 곧 <제2 기준>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

### 3. 명사와 감탄사 통용

《표준 2016》에서 명사와 감탄사 통용은 주로 호칭어, 구령, 유아 상대어에 나타난다.

- (4) 가. 아버지: 「명사」 ① 자기를 낳아 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나. 할아버지: 「명사」 ① 부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ㄴ조부02 「1」.  
「감탄사」 ① 부모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  
다. 차려: 「감탄사·명사」 『군사』 제식 훈련에서, 몸과 정신을 바로  
차리어 부동자세를 취하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양다리는 곧게 펴고 무릎은 붙인다.  
라. 걸음마: 「명사」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힐 때 발을 떼어 놓는 걸  
음걸이.  
「감탄사」 어린아이에게 걸음을 익히게 할 때 발을 떼어  
놓으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 (5) 가. 아버지/할아버지/차려/걸음마 + 가/틀/의/예/로/와  
나. 아버지, 할아버지 오시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오시어요.  
다. 차려, 쉬어.  
라. 걸음마, 우리 아기 잘도 걷는다.

---

6) <제4 기준>을 굳이 포함한 것은 규범문법의 대명사, 수사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명사의 경우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품사 분류에서는 명사를 대신하는 요소로 명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박진호 2007: 115-116) 그 범위가 제한된다. 수사의 경우도 ‘실제로 세는 단위’로 그 의미 범위를 제한하면 한자어인 ‘공’, ‘극’, ‘아승기’ 등 명사와 수사 통용은 대부분 명사로만 분류할 수 있다(김호중 2014: 90-156).



(4가)의 ‘아버지’는 ‘이르는 말’ 곧 지칭어와 ‘부르는 말’ 곧 호칭어를 묶어서 명사로만 분류하였는데 (4나)의 ‘할아버지’는 호칭어를 따로 감탄사로 분류하여 명사와 감탄사 통용이 되었다. (4다)의 구령 ‘차려’는 두 개의 품사를 하나로 묶어서 뜻풀이를 할 정도로 의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4라)의 유아 상대어 ‘걸음마’ 역시 명사와 감탄사의 의미 차이를 찾기 어렵다. (4가)를 제외하고 (4나, 다, 라)처럼 이른바 독립어 가운데 대부분의 호칭어, 구령, 유아 상대어는 명사와 감탄사 통용으로 되어 있다.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사와 통용된다는 감탄사 목록이 가장 많다. 이른바 독립어 기능을 통사론적 기능으로 인정하여 명사가 독립어 기능을 보인다는 이유에서 감탄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4)는 물론 제시어의 경우에도 독립어 기능을 보이지만 <제1 기준>을 먼저 적용하면 (5가)처럼 격조사가 통합할 수 있으므로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일 뿐이다. (5나, 다, 라)처럼 ‘아버지’, ‘할아버지’, ‘차려’, ‘걸음마’는 조사 없이 독립어 기능을 보일 수 있지만 <제1 기준>을 적용한 (5가)와 같은 특징을 보이므로 명사로만 분류할 수 있다.

<제1 기준>과 <제2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徐泰龍(1999가: 9-17)에서 ‘명사류 감탄사’로 분류한 단어, 김문기(2011: 148)에서 호칭어를 모은 ‘명사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완전한 문장’으로 제시한 대부분의 구령은 모두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모두 (5가)처럼 격조사가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탄사를 문장이나 소형문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탄사 가운데 상당수가 문장에서 필수적인 ‘동사+어미’의 구조에서 어휘화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문장으로 볼 수 있지만 ‘문장’은 어휘가 아니고 사전의 수록 대상도 아니다. 어휘화를 거쳐서 형성된 단어가 격조사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제1 기준>을 적용하여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어도 독립어이지만 감탄사로 인정하지 않고 명사로만 인정하는 것은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이 격조사가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호칭어, 구령, 유아 상대어로 쓰이는 경우에 이들 명사는 대부분 격조

사 없이 쓰인다. 품사를 분류하면서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경우마다 그 쓰임을 반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이 격조사의 통합이 가능하면 모두 명사로만 분류해야 한다. 독립어 기능을 기준으로 감탄사로 인정하는 것은 품사 분류 기준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다.

《표준 2016》에서 명사와 감탄사 통용인 예들은 <제1 기준>을 적용하여 명사로만 분류하고 명사의 독립어 기능을 인정하여 통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6) 가. 거서가니(방언), 거석(방언), 거시기, 거시키(비표준어), 머(구어), 머서가니(방언), 메세가니(방언), 무어, 뭐(준말), 어디 10개.  
나. 거시기, 무어, 어디.  
다. 이, 그, 저.

(6)은 《표준 2016》에 수록된 대명사와 감탄사 통용 목록과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6가)의 전체 목록에서 구어, 준말, 비표준어, 방언을 제외한 것이 (6나)이다. (6다)는 대명사와 관형사 통용과 구별하여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된 감탄사이다.

(7) 사전의 대명사와 감탄사 통용

	《표준》	《조선》	《한글》	《금성》	《연세》	《고려》
거시기	대명사 감탄사 통용	없음	대명사 감탄사 통용	대명사 감탄사 통용	대명사 (감탄사적으로 쓰이어)	대명사 감탄사 통용
무어	대명사 감탄사 통용	대명사 감탄사 통용	대명사 감탄사 통용	대명사 감탄사 통용	대명사	대명사 감탄사 통용
어디	대명사 감탄사 통용	대명사 (감탄사로 쓰이어)	대명사 감탄사 통용	대명사 감탄사 통용	대명사 부사	대명사 감탄사 통용
저	대명사 관형사 통용	대명사 (관형어로 쓰이어)	대명사 관형사 통용	대명사 관형사 통용	대명사 관형사	대명사 관형사 통용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표준 2016》에서 대명사와 감탄사 통용은 ‘거시기’, ‘무어’, ‘어디’ 등 의미가 미정, 부정인 것으로 대명사와 감탄사가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분명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무엇’에서 형태가 바뀐 ‘무어’와 ‘어디’는 독립어로 쓰이는 경우 의미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탄사를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고 통용으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7)의 사전마다 뜻풀이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한 것인지 다른 의미로 파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다. ‘거시기’, ‘무어’, ‘어디’를 감탄사로 따로 수록한 사전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대명사의 의미와 구별할 만한 다른 의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제1 기준>을 먼저 적용하면 ‘어디’를 《연세》처럼 부사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다음 (8)의 뜻풀이만으로도 ‘거시기’는 대명사와 ‘군소리’로 쓰인다는 감탄사의 의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7)의 사전이 모두 감탄사를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한 ‘저’와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8) 가. 거시기: 「대명사」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나. 거시기: 「감탄사」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

(9) 가. 저: 「감탄사」 ① 어떤 생각이나 말이 얼른 잘 떠오르지 아니할 때 쓰는 말. ② 말을 꺼내기가 어색하거나 곤란하여 머뭇거릴 때 쓰는 말.

나. 그: 「감탄사」 감개가 깊거나 무어라 말하기 어려울 때 하는 말.

다. 이: 「감탄사」 다른 사람이 위태한 지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급히 지르는 소리.

(10) 가. ① [저], 뭐냐 [ ] 아랫마을 [ ] 상돌이가 [ ] 다녀갔었어 [ ].

② [저], 말씀 중에 [ ] 잠시 [ ] 실례하겠습니다 [ ].

나. [그], 왜 [ ] 있잖아요 [?]./ [그], 뭐랄까 [?].

다. [이], 피해라./ [이], 넘어질라.

대부분의 사전에서 대명사와 관형사 통용으로 수록한 ‘이’, ‘그’, ‘저’는 관형사의 뜻풀이에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대명사이다. ‘이’, ‘그’, ‘저’ 가운데 이른바 형식 감탄사로 쓰이는 ‘저’는 (7)의 모든 사전이 감탄사를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감탄사를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한 것은 그 의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곧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대명사에서 그 용법이 확대된 감탄사 ‘저’는 관형어 기능도 보이지만 감탄사로는 상당한 의미 차이를 보인다. (10가)의 ‘저’는 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지시 대상이 있는 것처럼 하여 감탄사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10가)의 ‘저’는 수식 대상을 뒤의 표현에서 찾을 수 없다. 통사론적으로 뒤의 표현과는 수식 관계가 없다.<sup>7)</sup>

‘그’는 관형어 기능을 보이지만 감탄사로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호하다. (9나)의 ‘그’는 “감개가 깊거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탄사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10나)처럼 ‘그’가 문장 뒤에서 어색하다면 ‘그’는 아직 대명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를 감탄사로 수록한 사전은 《표준》, 《고려》 두 사전이다. 다른 사전은 수록하지 않았고 대명사나 관형사의 뜻풀이에 그 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그’, ‘저’ 가운데 ‘저’는 대명사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가 된 것이고, ‘그’는 아직 감탄사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대명사와 관련이 있는 ‘이’를 (7)의 모든 사전이 감탄사로는 수록하지 않았다. 지르는 소리로 감탄사 ‘이’가 있을 뿐이다. 대명사 ‘이’는 감탄사로 쓰임이나 다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7)은 모두 대명사이고, <제3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저’만 동음어인 감탄사로 인정할 수 있다.

7) 이 글에서 예문은 주로 《표준 2016》에서 일부 바꾸어 제시하지만 굳이 밝히지는 않는다. 예문에서 감탄사 뒤라도 “!”를 사용하지 않고 “,”를 사용한다. “!”는 독립어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 감탄사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므로 관형사나 부사와 감탄사의 관계를 찾기 위한 것이다.

#### 4. 관형사와 감탄사 통용

관형사는 수식 대상이 명사와 명사구이다. 그러나 관형사와 동일한 단어가 감탄사로도 인정되는 예들이 있는데 《표준 2016》에 일부는 관형사와 감탄사 통용으로, 일부는 관형사와 감탄사가 각각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11가)는 관형사와 감탄사 통용인 예이고,<sup>8)</sup> (11나)는 관형사와 감탄사가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예이다.

- (11) 가. 까짓, 난장맛을, 난장칠, 낸장맛을, 낸장칠, 떡을할, 빌어먹을, 염병할, 재미볼을, 재미할, 쟈장맛을, 쟈장칠 12개.  
나. 이런, 그런, 저런, 요런, 고런, 조런.

(11가)는 뒤에 수식 대상인 ‘놈’, ‘녀석’, ‘것’ 등의 명사가 있으면 관형사, 수식 대상인 명사가 없으면 감탄사로 구별하고 있다. 수식 대상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11가)는 ‘까짓’을 제외하면 ‘『관형사·감탄사』’로 품사 표시를 하고 뜻풀이조차 하나로만 되어 있어 관형사일 때와 감탄사일 때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가 없는 셈이다.

(11가)에는 관형사나 감탄사가 아니라 <제1 기준>으로 관형사형으로 기술할 수 있는 예가 있다. ‘난장 맛-’, ‘난장 치-’, ‘떡을 하-’라는 동사구 구성에 ‘-을’이 통합한 것부터 살펴보자. ‘난장맛을’, ‘난장칠’은 ‘난장’이 명사로 자립하여 쓰이고 ‘난장 날마다 맛을/칠’처럼 분리할 수 있으므로 ‘맛-’, ‘치-’가 결합한 동사구에 ‘-을’이 통합한 것이다. ‘떡을할’은 ‘떡을 하-’라는 동사구의 의미와 ‘떡을할’의 의미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제3 기준>을 적용하여 일단 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다. ‘빌어먹다’, ‘염병하다’는 동사로 쓰이는 예로 ‘빌어먹을’은 동사의 의미와 뚜렷한 의미 차이를 보이므로 <제3 기준>을 적용하여 일단 관형사로 분류

8) (11가)에서 ‘난장맛을’, ‘난장칠’은 《표준 2016》에 추가된 것이고 《표준》에 관형사와 감탄사 통용이었던 ‘낸장’은 관형사를 인정하지 않고 감탄사로 수정하였다.

할 수 있지만 ‘염병할’은 동사의 의미와 뚜렷한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어미가 통합한 ‘염병하-ㄴ다./네./고 있다.’ 등도 ‘염병하-ㄴ’과 같은 ‘염병하-’의 욕으로 쓰이는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므로 관형사로도 분류할 필요가 없다.

격조사가 통합할 수 없어 명사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감탄사로 분류되는 ‘넌장’, ‘젠장’, ‘제미’에 동사가 결합하고 다시 ‘-을’이 통합한 예들은 뒤에 통합하는 동사가 ‘맞을’, ‘칠’, ‘붙을’, ‘ㄴ-할’ 등으로 일정한 어미의 통합만 가능하므로 어휘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1가) 가운데 ‘까짓’, ‘넌장맞을’, ‘넌장칠’, ‘떡을할’, ‘빌어먹을’, ‘제미붙을’, ‘제미할’, ‘젠장맞을’, ‘젠장칠’만 관형사로 어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까짓’도 “별것 아닌. 또는 하찮은.”이라는 관형사의 뜻풀이와 “별것 아니라는 뜻으로, 무엇을 포기하거나 용기를 낼 때 하는 말.”이라는 감탄사의 뜻풀이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김문기 2011: 142-143). 담화 상황에 따른 내용이 감탄사에 추가되어 있는 정도이다. (11가) 가운데 ‘난장맞을’, ‘난장칠’, ‘염병할’을 제외한 예들은 <제2 기준>을 적용하면 관형사이다. 담화 상황에 따라서 수식 대상인 명사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관형사가 독립어로 쓰이는 것이므로 <제3 기준>을 적용하여 감탄사로 분류할 수가 없다.

(12) 사전의 관형사와 감탄사 분류에 문제가 있는 목록

	《표준》	《조선》	《한글》	《금성》	《연세》	《고려》
이런	관형사	감탄사	이러한 준말	이러한 준말	관형사	관형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그런	관형사	없음	그러한 준말	그러한 준말	관형사	관형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없음	감탄사
저런	관형사	감탄사	저러한 준말	저러한 준말	관형사	관형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요런	관형사	감탄사	요러한 준말	요러한 준말	표제어 없음 (중사전)	관형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고런	관형사	없음	고러한 준말	고러한 준말	표제어 없음 (중사전)	관형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조런	관형사	감탄사	조러한 준말	조러한 준말	표제어 없음 (중사전)	관형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11나), 곧 (12)의 예들은 우선 관형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된다. (12)는 상황 지시어 ‘이렇-’, ‘그렇-’, ‘저렇-’ 등과 어미 ‘-은’이 통합한 것이다. 뜻풀이에서도 ‘이러한/그러한/저러한’ 등과, ‘이리한/그리한/저리한’ 등이 줄어든 말로 되어 있어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가 관형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파랑+은’, ‘노랑+은’이 ‘파란’, ‘노란’으로 실현되는 것과 어미 통합에서 보이는 형태론적 특징도 같아서 어휘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관형사로 인정할 만한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모두 어미 ‘-은’이 통합한 관형사형이지 관형사는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이다. 수식 대상인 명사나 명사구를 찾을 수 없고, 담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여 따로 감탄사로 수록한 것이다. (12) 가운데 ‘그런’, ‘고런’은 《한글》, 《표준》, 《고려》에서는 감탄사를 표제어로 수록하였지만 《조선》, 《금성》, 《연세》에서는 감탄사를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았다. 화자 멀리에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일은 ‘저런’, ‘조런’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청자 가까이에서 들리거나 보이는 상황 대응과 함께 문맥 대응의 기능을 가지는 ‘그런’, ‘고런’은 화자의 느낌을 표현할 만한 온전한 독립어 기능으로 쓰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독립어 기능은 충분한 예들이 확보될 때까지 감탄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고런’은 관형사도 아니고 감탄사도 아닌 관형사형인 것으로 보인다.

(13) 가. 이런: (화자 가까이에서)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

나. 저런: (화자와 청자 멀리에서)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sup>9)</sup>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

다. 요런: (화자 가까이에서 낮잡거나 귀엽게 여길 만한) 뜻밖에 놀라운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에 하는 말.

라. 조런: (화자와 청자 멀리에서 낮잡거나 귀엽게 여길 만한) 뜻밖에 놀라운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

(14) 가. [이런],(/저런,/ [내 정신] 좀 봐라 [ ].

나. [저런],(/?이런,/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집으로 오시오 [ ].

다. 아니 [요런](/?조런,/), [천하에 몹쓸 놈] 같으니라고 [ ]!

라. [조런],(/?\*요런,/ [저러고도] 누구더러 누구를 위한다 [ ]!

(13)과 같은 뜻풀이는 ‘일’을 수식하는 구성일 가능성은 보이는데 감탄사일 경우 관형사형과 의미 차이를 보인다. 《표준 2016》에 감탄사로 수록된 ‘이런’, ‘그런’, ‘저런’의 뜻풀이가 동일하고, ‘요런’, ‘고런’, ‘조런’의 뜻풀이가 동일하다. 아무리 수식 대상인 명사구가 없고 ‘이’, ‘그’, ‘저’에서 형성된 어휘는 상황 지시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동일하게 뜻풀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13)에서 ( ) 속의 내용은 ‘이’와 ‘저’, ‘요’와 ‘조’의 《표준 2016》에 제시된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14)는 그 예문으로 제시된 것인데 ( )에 비교한 짝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에서 [ ] 표시 안의 성분은 앞에 감탄사로 제시한 예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이 아무 차이도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표준 2016》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이다. ‘요런’, ‘조런’은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는 쓸 수 없는지도 의문이다.

9) 특별한 이유가 없이 표현을 달리 한 ‘놀라운 일 또는’을 ‘놀라운 일이나’로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이렇-’, ‘저렇-’, ‘요렇-’, ‘조렇-’에 ‘-을’이 통합한 것은 명사 수식어로만 쓰여 독립어 기능을 보이지 못하지만 ‘-은’이 통합한 것은 (14)처럼 상황에 따라 문장 뒤 [ ] 위치에도 쓰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어 기능을 보인다. 따라서 (14)의 ‘이런’, ‘저런’, ‘요런’, ‘조런’을 감탄사로 따로 인정한 것은 관형사형이 담화 상황에 따라 독립어로 쓰이면서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이라는 관형사형에서 찾기 어려운 의미 때문이다. ‘이’, ‘저’의 차이로 인한 심리적인 거리감, ‘이런’은 ‘요런’과, ‘저런’은 ‘조런’과 어감의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짝을 이루는 것도 관형사형과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가 유사하다. 문장을 벗어난 담화 상황이나 화자의 심리에서 ‘이’, ‘저’, ‘요’, ‘조’의 차이를 보이지만 독립어 기능을 보이면 의미 축소가 일어나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에 쓰여 <제3 기준>을 적용하여 감탄사로 구별할 만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15) 가. [이런 바보/요런 바보]가 어디 있는가?

나. [[이런] 멍청한 바보/[요런] 멍청한 바보]가 어디 있는가?

다. [이런,/요런,] 큰 일 났다 [ ]./ 아무 일도 없네 [ ].

(16) 가. [저런 인간/조런 인간]이 다 있을까?

나. [[저런] 나쁜 인간/[조런] 나쁜 인간]이 다 있을까?

다. [저런,/조런,] 얼마나 아팠을까 [ ]?/ 아주 기쁘겠다 [ ].

(15-16가, 나)처럼 수식 대상과 범위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명사구를 수식하면 어미 ‘-은’이 통합한 관형사형이 분명하다. 그

10) ‘이’, ‘그’, ‘저’나 ‘요’, ‘고’, ‘조’에서 형성된 어휘들은 이들의 상황 지시 기능 때문에 수식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의미가 확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 (12)의 예들 가운데 ‘그런’, ‘고런’은 체계적인 관계를 보면 ‘이’, ‘요’, ‘저’, ‘조’에서 형성된 단어와 동일한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휘는 고도이다. 감탄사로는 관형사형과 구별할 만한 의미 축소가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 사전에 제시된 예문이나 말뭉치 자료에서는 감탄사로 단정할 만한 예를 찾기 어렵다.

러나 (15-16다)는 모호하다. 뒤의 표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뒤의 표현에 있는 성분 가운데 (15다)는 ‘큰 일’, ‘아무 일’이라는 명사구가 있지만 (16다)는 명사구가 없다. 명사구가 수식 대상이면 관형사형인데 (15다)처럼 명사구를 수식하지 않거나 (16다)처럼 수식 대상인 명사구가 없으면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15-16다)는 문장 뒤 [ ] 위치에 쓰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어 기능을 보인다.

《표준 2016》에서 관형사와 감탄사의 차이는 수식 대상이 명사나 명사구이면 관형사이고, 수식 대상을 이어지는 표현에서 찾을 수 없고 그 표현이 나타나는 담화 상황이나 화자의 심리에서 찾아야 하면 감탄사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수식 대상의 차이일 뿐이므로 의미가 동일하면 다른 품사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표준 2016》에서 관형사와 감탄사 통용인 (11가) 가운데 ‘난장맛을’, ‘난장칠’, ‘염병할’을 제외한 예들은 <제2 기준>을 적용하여 관형사로만 분류하고 관형사의 독립어 기능을 인정하여 통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1나), 곧 (12)의 예들 가운데 ‘이런’, ‘저런’, ‘요런’, ‘조런’은 <제1 기준>을 적용한 관형사형인데,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관형사로는 분류할 수 없고, 의미 차이를 보이는 감탄사로는 분류하여 관형사형과는 다른 단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5. 부사와 감탄사 통용

부사와 감탄사를 구별하려면 <제2 기준>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통사론적으로 부사는 수식 대상이 문장 안에 분명히 있는 반면에 감탄사는 수식 대상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차이가 있다.

- (17) 가. 가동가동, 가만, 구구, 그러게, 꾸꾸, 바로, 아무리, 앙, 어쩔면,  
어쩔, 억, 얼싸둥둥, 오오, 와, 와<방언>, 와-와, 왕배야-덕배야,

왜, 왜서<방언>, 으아, 으악, 정말, 카, 커, 함마<방언> 25개.

나. 무사<방언>(부사), 아차(감탄사), 어흥(부사), 참(명사/부사/감탄사), 참말(명사/부사), 쫓(부사), 쫓쫓(부사) 7개.

(17가)는 《표준》의 부사와 감탄사 통용 목록이고 ( ) 안의 품사로만 분류했던 (17나)는 《표준 2016》에서 부사와 감탄사 통용 목록에 추가된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부사와 감탄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해진 것일까? 부사와 감탄사의 구별은 <제2 기준>과 <제3 기준>으로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다. 독립어로 쓰일 경우 의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8) 가. 의성부사: 구구, 꾸꾸, 아차, 앙, 어흥, 억, 와, 와-와, 으아, 으악,  
쫓, 쫓쫓, 카, 커.

의태부사: 가동가동, 얼싸둥둥.

나. 가만, 그러게, 바로, 아무리, 어쩌면, 어쩔, 왜.

다. 정말, 참, 참말.

《표준 2016》의 부사와 감탄사 통용 유형은 방언을 제외하면 크게 (18가)의 상징부사와 감탄사, (18나)의 부사와 감탄사, (18다)의 명사와 억지로 인정한 부사와 감탄사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상징어인 (18가)를 대상으로 김미선(2010: 17-20)에서 부사와 감탄사 두 품사로 구별해야 하는지, 통용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품사로 묶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표준》의 뜻풀이에 제시된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가 그 결과이다.

(19) 가. 상징부사: 구구, 꾸꾸, 어흥.

---

11) (17)의 목록이 단순 검색 결과를 보인 (1)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 품사의 통용인 ‘참’이 《표준》에 누락되어 나타나고, ‘바로’가 《표준 2016》에 누락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 부사와 감탄사 구별: 앙, 얼싸둥둥, 카, 커.

다. 부사와 감탄사 통용: 쫓, 쫓쫓, 히힃.

(19)에서 ‘어흥’, ‘카’, ‘커’, ‘쫓쫓’과 (18가)에서 문제가 있는 ‘와’를 대상으로 부사와 감탄사 통용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20) 가. 「부사」 호랑이가 우는 소리.

나. 「감탄사」 어린아이를 겁나게 하기 위하여 호랑이의 우는 소리를 흉내 내는 소리.

(21) 가. 호랑이가 [[어흥] 소리]를 내며 우리 안을 뛰어다닌다.

나. 형은 동생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어흥!”] 하고 소리를 질렀다.

(20)은 《표준 2016》에 제시된 ‘어흥’의 뜻풀이이고 (21)이 그 예문이다. ‘어흥’은 호랑이 소리를 흉내 낸 것에 불과하므로 부사로만 분류할(김미선 2010: 18-19) 수 있다. 다만, (21가)의 ‘어흥’은 수식 대상이 ‘소리’이면 부사가 아니라 오히려 관형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의성어는 그 뒤에 오는 ‘소리’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수식 대상이 명사이므로 관형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사는 명사도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부사가 된다. (21나)는 직접 인용된 독립어로 파악하고 감탄사로 분류한 것이지만 부사를 직접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22) 가. [어흥, 반갑지?/ 놀랐지?/ 재미있지?/ 재미없지?

나. [야옹, 이놈의 쥐새끼들.

(22)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 것이지만 수식 대상을 이어지는 표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22)의 ‘어흥’, ‘야옹’은 무조건 부사인가?

(22)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는 물론 사물에서 나는 소리도 의성부사로 분류하여 사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부사와 묶어 상징부사, 곧 부

사로 분류한다는 기준을 세우면 무조건 상징부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소리는 감정 감탄사, 곧 감탄사로 분류하는데 그 구별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22나)의 쥐를 쫓기 위하여 ‘야옹’이란 고양이 울음소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야옹’을 감탄사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22나)의 ‘야옹’을 감탄사로 인정할 수 없다면, ‘어흥’ 등의 동물의 소리는 동물을 상대로 사용하든지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든지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감탄사로 분류하지 말고 부사로만 분류해야 한다.

(23) 가. 와: 「부사」 ① 여럿이 한꺼번에 몰려 움직이는 모양. ② 여럿이 한꺼번에 웃거나 떠들거나 지르는 소리.

나. 와: 「감탄사」 ① 우아01 ①의 준말. ② 우아01 ②의 준말. ③ 우아01 ③의 준말.

(24) 우아01: 「감탄사」 ① 뜻밖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소리. ② 여럿이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려고 외치는 소리. ③ 소나 말을 멈추게 하거나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 가볍게 달래는 소리.

‘와’의 경우도 부사 ①, 부사 ②와 감탄사 ②는 뜻풀이에 공통점이 있지만 감탄사 ①, 감탄사 ③은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지만 감탄사 ①까지는 부사 ‘와’의 다의어로 기술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나 말을 상대로 하는 감탄사 ③은 동물 상대어로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해야 할 것이다.

의성어 가운데 ‘쫄쫄’과 ‘카’는 사전마다 그 뜻풀이에 차이가 있다.

(25) 부사와 감탄사 통용

	《표준》	《조선》	《한글》	《금성》	《연세》	《고려》
쫄쫄	부사 감탄사 통용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부사 감탄사 통용

카	잠:부사 맛:감탄사 통용	잠:부사 맛:(감탄 사로 쓰이어)	맛:감탄사 잠:부사 통용	감탄사 (맛+잠)	잠:없음 맛:감탄사	잠:부사 맛:감탄사 통용
	부사 감탄사 통용	부사	부사	부사 감탄사 통용	부사 감탄사	부사 감탄사 통용

‘쫄쫄’은 《표준》에 부사로만 분류하였다가 《표준 2016》에는 감탄사도 인정하여 부사와 감탄사 통용이 된 예이다. 김미선(2010: 19-20)도 부사와 감탄사 통용으로 인정한 것이다.

(26) 가. 「부사」 연민을 느끼거나 마음에 못마땅하여 자꾸 가볍게 혀를 차는 소리.

나. 「감탄사」 연민을 느끼거나 마음에 못마땅할 때에 혀를 자꾸 차내는 소리.

(27) 가. [[쫄쫄] 그는 혀를 차]았다./ [[쫄쫄]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나. [쫄쫄], 고생이 오죽 심하였겠니?

다. [쫄쫄], 한심한 짓만 하는구나.

라. [쫄쫄], 오늘도 비가 오는군./ [쫄쫄], 오늘도 비가 오지 않는군.

(26-27가, 나)는 ‘쫄쫄’에 대한 부사와 감탄사로 설정한 뜻풀이와 그 예문이다. ‘가볍게’를 제외하면 ‘자꾸 혀를 차는 소리’라는 뜻풀이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예문에서 (27가)처럼 수식 대상인 ‘혀를 차-’라는 동사구나 ‘혀를 차는 소리’라는 명사구가 있으면 부사로 분류하고, (27나)처럼 수식 대상을 찾기 어려우면 감탄사로 분류한 것이다. (25)처럼 모든 사전이 감탄사로 인정하고 있지만 (27가)는 ‘쫄쫄’이 ‘혀를 차-’나 ‘혀를 차는 소리’를 수식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사이다. 위치에 따라서 수식 대상이나 수식 범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동사구나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다. (27나)의 경우는 모호하다. ‘쫄쫄’이 ‘고생이 오죽 심하-’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

다. (27다)는 김미선(2010: 19-20)에서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로 인정한 예문이다. (27라)는 화자의 심리나 담화 상황을 모르면 ‘쫄쫄’과 ‘오늘도 비가 오는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오늘도 비가 오지 않는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다, 라)는 감탄사인가? 문제는 그 뜻풀이와 예문이다. (27다, 라)의 ‘쫄쫄’에 대한 뜻풀이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26나)의 뜻풀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26가)와 같은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똑같은 소리를 흉내 낸 것이고 뜻풀이조차 동일한 단어인데 감탄사를 별도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 동물 상대어와 같이 부사로만 분류하고 담화 상황에 따른 독립어 기능을 인정하면 될 것이다.

(28) 가. 카: 「부사」 곧하게 잘 때에 (숨을 쉬지 않다가 혀뿌리를 터뜨리며) 내쉬는 숨소리.

나. 카: 「감탄사」 맛이 맵거나 냄새가 몹시 독할 때, 또는 술 따위를 마시고 (숨을 쉬지 않다가 혀뿌리를 터뜨리며) 가볍게 일부러 내는 소리.

(28)처럼 대부분의 사전은 ‘카’를 잠잘 때 내는 소리는 부사, 맛이나 냄새가 독할 때 내는 소리는 감탄사로 구별하면서도 통용이나 하나의 품사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이 내는 소리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부사일 경우 잠잘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는 소리인 반면에 감탄사일 경우는 ‘맛이나 냄새’로 인하여 의식적으로 내는 소리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8)의 뜻풀이로는 이들이 하나의 단어가 다의성의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통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고 통용이라고 한 것은 그 형식과 의미가 동일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부사 ‘카’의 뜻풀이 “곧히 잠잘 때 목젢에 붙은 혀뿌리를 터뜨리며 숨을 쉬는 소리.”에 일부 표현된 “숨을 쉬지 않다가 혀뿌리를 터뜨리며 내는 소리” 곧 필자가 ( ) 안에 추가한 내용을 공통적인 기본의미로 모두 제시하고, 그 상황을 ‘곧하게 잠 잘 때’와 ‘맛이 맵거나 냄새가

독할 때'로 나타내야 하나의 단어가 다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9) 가. 동생은 누운 지 얼마 안 돼서 [[카/커] 소리]를 내며 곧히 잠들었다.

나. [카/커], 술맛 좋다./ 고약하군.

[카/커], 그 냄새 한번 지독하네.

다. 독한 술맛/냄새 때문에 참았던 숨을 [[카/커] 내쉬]더라.

《표준 2016》에 ‘잠’과 관련이 있는 (29가)는 부사, ‘맛’이나 ‘냄새’와 관련이 있는 (29나)는 감탄사로 분류한 ‘카’나 ‘커’의 예문이다. (29나)의 예들에서 ‘카/커’가 ‘맛’, ‘냄새’가 들어 있는 성분을 수식하지는 않는다. (29나)에서 ‘카/커’의 독립어 기능은 인정할 수 있다. (29다)에서 ‘카/커’는 앞 표현의 ‘술맛’, ‘냄새’와 관계를 보이고 ‘내쉬-’를 수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나, 다)의 경우도 그 의미는 ‘숨을 쉬지 않다가 허뿌리를 터뜨리며 내는 소리’이므로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가 없어 감탄사로 분류할 수는 없다.

(29)의 ‘카’와 ‘커’는 모음 대립어로, 모음 대립어가 있는 것은 상징부사의 특징인데 이들은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도 모음 대립어가 있어 부사이다.

이상 (19-29)처럼 상징부사와 통용된다는 감탄사는 상징부사가 독립어로 쓰이는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굳이 감탄사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29)에서 단순히 소리를 묘사하는 경우 상징부사로 인정할 수 있다. (19-29)는 이른바 문두 위치에서 입에서 나는 소리에 의한 감정을 표시하는 경우는 감탄사로 분류하고 입에서 나는 소리를 단순히 묘사하면 부사로 구별한 셈이다. 이들은 <제2 기준>을 적용하여 부사로만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 이어지는 표현에 수식 대상인 동사구가 있으므로 부사이다.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도 <제3 기준>을 적용할 만



한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감탄사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18나) 가운데 부사와 감탄사 통용 문제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가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30) 가. ① 아픈 몸 자꾸 움직이지 말고 [가만 누워 있]어라.

② 그런 모욕을 받는다면 나도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야.

③ 혼자서 [가만 생각하]여 보니까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

④ [가만 보]면 빈틈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어수룩한 데가 있다.

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내 주머니에 쪽지 하나를 [가만히/가만] 찢어 주었다

나. [가만/가만히], 저게 무슨 소리지?/ [가만/가만히], 내 말 좀 들어 봐.

(30) ‘가만’은 《표준 2016》에 감탄사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막을 때 쓰는 말.”이라는 뜻풀이가 있는데 ‘남의 말이나 행동’을 제외하면 ‘가만히’의 동의어로 기술한 부사 ‘가만’의 뜻풀이 “①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②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③ 마음을 가다듬어 곰곰이. ④ 말없이 찬찬히.”와 차이가 없는 셈이다. 부사일 때는 화자 자신, 청자, 제삼자를 구별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행동이 없이.” 정도로 그 기본의미를 설정할 수 있는데 감탄사일 때는 화자를 제외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막을 때 사용된다.”는 정도의 차이로 기술되어 있는 셈이다. 결국 부사나 감탄사 ‘가만’은 그 기본의미가 동일한 것이다. 김문기(2011: 143)에서 의미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부사로만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문장’으로 볼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였다가 김문기(2012: 134-137)에서는 부사 ‘가만’의 뜻풀이에 ‘조심스럽게, 조용히, 삼가’ 정도를 추가하면 감탄사로 분류하지 않고 부사로만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준 2016》에서 ‘가만히’의 뜻풀이에 ‘가만’과 달리 추가된 “⑤ 움직임 따위가 그다지 드러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은은하게.”를 포함하면 ‘가만’과 ‘가만히’는 뜻풀이에서 차이가 없게 된

다. ‘가만’은 부사나 감탄사의 기본의미가 동일하다면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차이가 없는 셈이다.

(30가)는 ‘가만’의 수식 대상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어지는 동사나 동사구인 반면에 (30나)는 ‘가만’의 수식 대상을 이어지는 표현에서 찾기 어렵다. (30나)는 대화의 상대나 주변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이 없이 조용히’ 하기를 바라는 담화 상황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한다. (30나)에서 ‘가만히’가 가능한데 ‘가만히’는 왜 감탄사로 인정하지 않고 부사로만 인정하는가? ‘가만’도 ‘가만히’처럼 부사일 뿐이다.

(25)처럼 ‘가만’은 부사로만 수록한 사전이 《조선》, 《한글》이고 부사와 감탄사 통용으로 수록한 사전이 《금성》, 《표준》, 《고려》, 부사와 감탄사를 각각 분리하여 표제어로 수록한 사전이 《연세》이다. 《연세》의 “[남의 말이나 행동을 잠시 멈출 때 쓰이어] ‘잠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을 나타냄.”이라는 감탄사의 뜻풀이는 부사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연세》를 제외한 모든 사전이 ‘가만’을 따로 표제어를 분리하여 감탄사로 수록하지 않은 것은 비록 뜻풀이에서는 부사와 차이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라도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만’을 살펴본 결과 이어지는 표현에 수식하거나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이 있는 경우는 부사로 분류하고, 이어지는 표현에 수식하거나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감탄사로 분류한 것이다. 이들은 수식하거나 관계를 맺는 대상을 담화에서 찾아야 할 경우 감탄사로 분류한 것인데 부사가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것이다.

《표준 2016》에서 부사와 감탄사 통용인 예들은 <제2 기준>을 적용하여 부사로만 분류하고 부사의 독립어 기능을 인정하여 통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6. 결론

국어 품사 분류 기준을 <제1 기준> 형태, <제2 기준> 통사, <제3 기준> 의미, <제4 기준> 의미의 공통점과 같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용하면 감탄사와 관련된 품사 통용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형태’는 형태론적 특징으로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을 적용하며, ‘통사’는 통사론적 수식 기능을 적용한다. ‘의미’는 의미론적 동음어를 다른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1)의 감탄사와 관련된 통용 문제는 통사론적 기능이라고 하기 어려운 독립어 기능을 근거로 한 것일 뿐이다.

1. <제1 기준>에 따라서 격조사가 통합할 수 있는 명사는 격조사 없이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도 명사로만 분류한다. (예: 아버지, 할아버지, 차려, 걸음마 등등.) 대명사 ‘이’, ‘그’, ‘저’는 명사 수식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형사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저’의 경우는 독립어 기능을 보이면 의미 차이를 보이므로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2. <제2 기준>에 따라서 관형사는 수식하는 어휘로 수식 대상은 명사와 명사구이다. 관형사는 이어지는 표현에 수식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하지만 잠재적인 수식 대상이 있는 어휘이다. 통사론적 수식 대상이 없이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도 관형사로만 분류할 수 있다. (예: 까짓, 떡을할, 빌어먹을 등등.)

3. <제2 기준>에 따라서 부사는 수식하는 어휘로 관형사를 제외한 단어 가운데 동사와 동사구, 관형사나 부사와 이들이 핵인 수식사구, 명사와 명사구, 어미구 등 수식 대상은 문장 안의 성분이다. 부사는 수식 대상 앞에 위치하여 위치에 따라서 수식 대상이나 수식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부사는 이어지는 표현에 수식 대상이 명시되지 않으면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하지만 잠재적인 수식 대상이 있는 어휘이다. 통사론적 수식 대상이 없이 독립어 기능을 보이는 경우에도 부사로만 분류할 수 있다. (예: 쫓쫓, 카, 가만 등등.)

4. <제1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어휘를 명사와 감탄사 통용, <제2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어휘를 관형사와 감탄사 통용, 부사와 감탄사 통용으로 분류하거나 기술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각각 명사, 관형사, 부사이다. 《표준 2016》에 감탄사와 통용된다는 명사, 관형사, 부사는 <제3 기준>을 적용할 만한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명사, 관형사, 부사일 뿐이다.

5. <제3 기준>에 따라서 의미 차이를 보이는 단어로 ‘이런’, ‘요런’, ‘저런’, ‘조런’은 독립어 기능을 보이면서 관형사형과 다른 의미를 나타내므로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독립어 기능을 보인다는 것만을 근거로 감탄사로 분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명사를 비롯한 자립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휘가 담화에서 독립어 기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구본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179-199.
- 김문기(2011), 품사 통용의 감탄사 처리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129-152.
- 김문기(2012), 감탄사와 부사의 문법 범주적 관련성 연구, 《한글》 296, 한글학회, 123-150.
- 김미선(2010), 감탄사와 부사의 경계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5-30.
- 김호중(2014), 국어 명사와 대명사, 명사와 수사의 품사 통용,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國語學》 50, 國語學會, 115-147.
- 徐泰龍(1999가), 국어 감탄사에 대하여, 《東岳語文論集》 第三十四輯, 東岳語文學會, 7-36.
- 徐泰龍(1999나), 국어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 《東岳語文論集》 第三十五輯, 東岳語文學會, 21-49.
- 徐泰龍(2000), 국어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 《國語學》 35, 國語學會, 252-285.
- 徐泰龍(2006),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 《李秉根先生退任紀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359-389.
- 徐泰龍(2012), 修飾語의 修飾 對象과 修飾詞 -《표준국어대사전》의 품사 통용을 해결하기 위해-, 《語文研究》 40-4(통권 156호), 韓國語文敎育研究會, 7-33.
- 徐泰龍(2016), 부사의 통사론적 수식과 감탄사의 담화 수식, 《安秉禧 先生 10주기 추모 논문집》, 인쇄 중.
- 이영경(2003),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사전류〉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16),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2007),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원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2000),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운평연구소 편(1991/1996), 《국어대사전(제2판)》, 금성출판사.  
한글학회 지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전화: 02-2260-3148  
E-mail: seotly@hanmail.net  
투고 일자: 2016. 07. 31.  
심사 일자: 2016. 08. 13.  
게재 확정 일자: 2016. 12. 08.

The Priorities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in Korean Parts of Speech and an Interjection

[Seo, Tae-Lyong]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와 감탄사 통용 [徐泰龍]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orities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in Korean parts of speech (1) morphology, (2) syntax, (3) semantics and resolve the problem of multi-category word related to interjection.

(1) The 1st classification criteria of word classes, ‘morphological distribution’ which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immediately following the agglutinative endings because Korean is agglutinative language.

(2) The 2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word classes, ‘syntactic function’ which consider the syntactic modification in the sentential constituent.

(3) The 3rd classification criteria of word classes, ‘semantic meaning’ which is necessary to distinguish multi-category word and homophone.

The preceding criteria is applied, does not apply to the following criteria.

If analyzing a noun, an adnoun and an adverb as a modifier and an interjection as an independent word, they can be easily misjudged as multi-category words because all of them are used as independent words in discourse.

Referring to only the function of modification and independence of a word, there can be many multi-category words. Therefore, its function in modification and independence can not be the 1st

classification criteria of categorizing the parts of speech.

The nouns and the interjections which are the same in form and meaning are not multi-category words, but just nouns according to (1).

The adnouns and the interjections which are the same in form and meaning are not multi-category words, but just adnouns according to (2).

The adverbs and the interjections which are the same in form and meaning are not multi-category words, but just adverbs according to (2).

Therefore, Korean dictionary has no need to put one word as both a noun and an interjection, an adnoun and an interjection, an adverb and an interjection.

Key words: priorities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noun-interjection multi-category, adnoun-interjection multi-category, adverb-interjection multi-category, noun, adnoun, adverb, interjection, syntactic modification, homophone